

## 선재국어 2016 사회복지직 9급 정답&해설

### 1. 정답 ①

**해설** 동음 한자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문맥상 ‘(서류 내용을) 고쳐야만 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글자나 글 따위의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음’의 의미인 ‘訂正(바로잡을 정, 바를 정)’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正定(바를 정, 정할 정): 팔정도의 하나. 번뇌로 인한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안정하는 일이다.

③ 正丁(바를 정, 고무래 정): 직접 군역(軍役)에 나가는 사람.

④ 正正(바를 정, 바를 정): ‘정정하다(正正--, 바르고 가지런하다. / 바르고 떳떳하다)’의 어근.

### 2.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②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오답 풀이** ①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③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④ 소리장도(笑裏藏刀):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 ㄴ소중도(笑中刀)

### 3. 정답 ②

**해설** ‘밀양’은 ‘알약[알락]’과 같이 ‘ㄴ’ 음이 첨가되는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그대로 연음되어 ‘[미량]’으로 소리 난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표기하므로 ‘Miryang’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다.

### 4. 정답 ③

**해설** 은연 중에 → 은연중: ‘중’은 보통 의존 명사로 쓰여 ‘여럿의 한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제일 크니?) / 무엇을 하는 동안(㉡ 수업 중) / 어떤 상태에 있는 동안(㉢ 임신 중) / 어떤 시간의 한계를 넘지 않는 동안(㉣ 오전 중으로)’ 등과 같이 쓰인다. 그러나 ‘은연중(隱然中)’은 한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무심중(無心中), 무의식중(無意識中), 부재중(不在中)’도 한 단어로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② ‘-ㄴ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앞말에 붙여 쓴다.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④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쓴다.

### 5. 정답 ①

**해설** 《개정 표준 언어 예절》에서는 “‘축하드립니다’는 ‘축하합니다’보다 높임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인 것이다. 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감사합니다’를 ‘감사드립니다’로 ‘약속합니다’를 ‘약속드립니다’로 표현하는 것은 ‘축하합니다’를 ‘축하드립니다’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법상 바른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나오셨습니다 → 나왔습니다: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에 고객을 존대하려는 의도로 불필요하게 간접 높임을 사용하였다.

③ 안절부절하며 → 안절부절못하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의 의미로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이다.

④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은 회장님과 연관된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을 써서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 6. 정답 ④

**해설** 이 시에서 화자는 봄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는 강나루’로, 봄날 땅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으로 비유하고 있다. ‘향연(香煙)’은 ‘향이 타며 나는 연기’로 임의 죽음을 암시하는 시어이다. 즉 시적 화자는 임을 잃은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봄비가 내리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는 내 마음의 강나루’로 비유하여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② ‘이 비 그치면’을 제외한 모든 시행을 ‘내 마음 / 강나루 / 긴 언덕에’, ‘푸르른 / 보리밭 길 / 맑은 하늘에’처럼 3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어 민요조의 율격을 느낄 수 있다.

③ ‘오것다’, ‘지결이것다’, ‘타오르것다’ 등에서 ‘-것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7. 정답 ③

**해설** 점순이가 내가 ‘긴지 않은 수작’으로 표현한,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걸어오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지령을 내리거나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는 상대방과 친교를 긴밀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친교적 기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친교적 기능’은 언어의 개념적 관습적 의미 보다는 발화 상황이 중시되며 대표적인 예로 인사말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미학적 기능: 전언(傳言)의 형식을 보다 미적으로 가다듬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이다. 시적(詩的) 기능이라고도 한다.

② 지령적 기능: 듣는 사람에게 감화 작용을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기능으로, 청자의 심리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 표어, 광고문, 선거 연설, 속담, 격언 등이 이에 속한다.

④ 표현적 기능: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기능으로,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 표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8. 정답 ④

**해설** 족보 제작에 들어간 돈을 둘러싼 상훈과 부친(영감)의 언쟁이 나타난 부분이다. 상훈은 부친에 대해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족보 제작에 큰돈을 들이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친(영감)은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라며 상훈의 약점을 들어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상훈과 부친 모두 상대방의 행동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 ②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라는 상훈의 말은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족보를 제작하려는 부친을 이용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이다.
- ③ 상훈과 부친 모두 상대방의 약점(상훈 - 흥경애와의 불륜 / 부친 - 족보 제작에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을 비유적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9. 정답 ①

해설 ㉠ ‘도자(불도저)’, ㉡ ‘방독’, ㉢ ‘트럭’은 삼포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반면 ㉣ ‘하늘’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는 ‘자연과 연결된 인간 본연의 순수성’이나 ‘자연에 대한 경외와 존중’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10. 정답 ②

해설 헤이스팅스(Hastings)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과 같은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지만, 역사가는 이런 것들을 틀려서는 안 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성은 역사가의 ‘의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역사가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②는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11. 정답 ④

해설 ‘가물’은 ‘가뭄’의 복수 표준어이다. ‘가물에 콩(씨) 나듯’은 가뭄에는 심은 콩이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하여 드문드문 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나 물건이 어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한참 → 한창: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한다 (예 그들은 폐허가 된 집터를 한참이나 둘러보았다).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의미할 때에는 ‘한창’을 쓰는 것이 맞는다.

② 결제 → 결재: 대금을 주고받아 매대 당사자 간의 거래를 끝맺는 것은 ‘결제(決済)’이고,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결재(決裁)’이다. 따라서 기획안은 ‘결재(決裁)’하는 것이 맞는다.

③ 여위었다 → 여의었다: ‘여위다’는 ‘몸의 살이 빠져 파리하게 되다/살림 살이가 매우 가난하고 구차하게 되다’ 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별하다’ 등의 뜻으로 쓸 때에는 ‘여의다’를 쓰는 것이 맞는다.

12. 정답 ④

해설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의 의미로 쓸 때에는 ‘새우다’를 쓰는 것이 맞는다. ‘세우다’는 ‘서다’의 사동사 또는 ‘주장이나 고집 따위를 강하게 내세우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남을 단단히 옥박질러서 혼을 내다’의 의미로 ‘닭달하다’가 바른 표기이다. ‘닭달하다’는 비표준어이다.

13. 정답 ④

해설 음운 현상에 관한 문제이다. ‘달히다’는 [다티다]와 같이 ‘달-’의 받침소리 [ㄷ]와 ‘히’의 ‘ㅎ’이 만나 [티]로 되는 ‘축약(음운의 축약)’과 [티]가 모음 ‘ㅣ’를 만나 [치]로 되는 구개음화(음운의 교체)를 거쳐 [다치다]와 같이 소리 난다.

- 오답 풀이 ① ‘놓치다’는 ‘놓-’의 받침 ‘ㅎ’을 대표음 ‘ㄷ’으로 바뀌(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운의 교체) [놓치다]로 발음한다.
- ② ‘헛웃음’은 ‘헛’의 받침 ‘ㅅ’ 뒤에 ‘ㅓ’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대표음 ‘ㄷ’으로 바꾼 후(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운의 교체) 연음하여 [허두슴]으로 발음한다.
- ③ ‘똑같이’는 ‘같-’의 받침 ‘ㄷ’이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와 결합할 때 제 음가대로 연음되어 [가티]가 된 후 [티]가 모음 ‘ㅣ’를 만나 [치]로 되는 구개음화(음운의 교체)가 나타난다. 또한 받침 ‘똑’의 받침 ‘ㄱ’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된소리되기 - 음운의 교체) 결국 [똑가치]로 발음한다.

14. 정답 정답 없음

해설 출제위원회가 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한 뒤, 이후 이를 중의적 문장으로 인정하여 정답 없음으로 처리한 문제이다. 이는 보조사 ‘느’이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자리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소년들이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는 것인지, ‘모든 소년들을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 있다’가 지닌 서술어의 동작 또는 상태 여부에 따른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다. 동작의 진행상으로서 ‘현재 바지를 입고 있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 이미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로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② 미희가 많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미희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③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입원 환자를 둘러 본 것인지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 모두를 둘러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15. 정답 ②

해설 ‘고충(苦衷: 쓸 고, 속마음 충)’과 ‘고민(苦悶: 쓸 고, 번민할 민)’은 모두 ‘쓸 고(苦)’를 쓴다.

오답 풀이 ① 신문고(申聞鼓: 거둬 신, 들을 문, 복 고)

③ 고발(告發: 고할 고, 필 발)

④ 숙고(熟考: 익을 숙, 생각할 고)

16. 정답 ②

해설 동사와 형용사를 변별하는 문제이다.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태만으로는 늙다의 품사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늙다’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다’라는 상태의 진행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형 어미 ‘-ㄴ다/-는다’와 결합하여 활용을 하면 동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용사인 ‘젊다’는 ‘내가 네 덕분에 젊는다’가 불가능한 반면, ‘늙다’는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늙다’는 동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③, ④는 모두 품사가 형용사이지만 ② ‘삼다’의 품사는 동사이다.

17. 정답 ②

해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이다. 그러므로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이 아니라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인 《훈민정음》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

오답 풀이 ① ‘훈민정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제시되어 있다.

「1」『언어』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

「2」『책명』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보 제70호. ≡정음(正音)·해례·해례본·훈민정음해례·훈민정음해례본.

- ③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해례본’은 한문으로 쓰여 있고, 이를 세종 사후에 언해한 것이 ‘언해본’이다.

\*〈세종어제훈민정음〉: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御製序文)과 자모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를 한글로 풀이한 것. 《월인석보》의 첫머리에 실렸다. ≡훈민정음언해.

- ④ ‘치두음(齒頭音)’은 혀끝을 윗니 뒤에 가까이 하고 내는 치음으로, 중국어 파위에 있다. ‘정치음(正齒音)’ 역시 중국어에서, 혀를 말아 아래 잇몸에 가까이 하고 내는 치음의 하나이다.

#### 18. 정답 ④

**해설** 과거 고향 마을의 소박하고 정겹던 중국집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도 이러한 중국집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바람이 나타난 수필이다. 자장면이나 중국집을 의인화한 표현이나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장면’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고향의 중국집과 중국집 주인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③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지씩 싸 주며 “이거 먹어해, 해해해.” 하던 그 집주인”,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궤(掌櫃) 같은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를 통해 ‘중국집(과 중국집 주인)’의 소박함과 정겨움을 서술하고 있다.

#### 19. 정답 ①

**해설**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가 부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20세기 한국 지성인들은 대체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틀 속에서 지적 행위를 해 왔다. → (가) 그러나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부재했는데, 그 원인은 매우 단순하다. → 원인 분석[(나) 동양이 서양을 해석할 때,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 한다. → (다) 동양인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 (라) 그럼에도 동양인인 우리는 동양을 너무도 몰랐다.] → 결론[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가 부재한 이유는 서양을 해석할 동양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 20. 정답 ③

**해설** 괄호 뒤에 나오는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추론할 수 있다. 글쓴이는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상에 대해 다음 문장에서 ‘그것은 오로지 소유(所有)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라는 말을 통해 소유욕이 클수록 이해관계 역시 첨예해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소유욕(所有慾)과 이해(利害)’의 정비례 관계에 대해 진술한 ③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